

# 약세장에 배당주 재주목… 은행·손해보험株 피난처 되나

美연준 3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  
금리상승에 은행 실적 사상최고  
손보사, 29곳 순이익 46% 증가  
이익따라 배당수익률 상승 기대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보험주가 다시 방어주로 주목받고 있다.

주가부진에도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배당 매력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4개 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 2조 7566억 원, 신한금융지주 2조 7208억 원, 우리금융지주 1조 7614억 원, 하나금융지주 1조 7274억 원 순으로 이익을 올렸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반기 장기보험, 자동차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영업 이익이 개선됐으며 환율 상승으로 외화 환산이익도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29곳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7% 증가한 3조 4337억 원

이다.

이같은 호실적에도 은행·손해보험 관련주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신한지주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으나 21일 다시 하락 전환해 2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신한지주는 이달 들어 1.50% 하락 했으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은 각각 2.80%, 0.80% 떨어졌다. 우리금융지주 또한 3.2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주가는 각각 1.02%, 1.11% 하락했으며 DB손해보험은 0.50% 떨어졌다.

약세장 속에서 금융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은행·손해 보험 관련주

의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전망이어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은행(7.5%), 손해보험(6.3%), 증권(4.9%), 생명보험(4%) 순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과 손해보험은 이익 수준이 향상됐으며 최근 금융주 주가가 약세를 보여 예상 배당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제롬 파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은행·손해 보험주는 금리인상기 수혜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 배당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여기서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구간이라고 판단해 금융주 내 보험업종, 특히 손해보험주에 대한 추천을 유지한다”며 “보험은 본질가치와 손익 모두에서 금리 상승의 혜택을 오롯이 받는 금리 수혜주다. 하반기 실적에서 신규 모멘텀은 부족해 단기적인 주가는 답보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 사이클을 보고 매수해도 좋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코스피 상장사 불성실공시 건수 증가세”

### 박재호 민주당의원

“공정한 자본시장 위한 중요 요소  
당국 원인규명·해결책 마련돼야”

최근 5년간 코스피 기업 내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면서 누적 제재금이 13억 8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범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변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 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이 78건, 코스닥 기업이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4건을 기록했다.

특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 기록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최근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다.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2020년 121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2021년 99건, 올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29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영어교육도시 인근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

### 한화건설

전용 84~210㎡, 총 503세대 조성  
희소성 높은 브랜드 대단지 관심 ↑

한화건설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랜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단지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 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곳자왈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조감도.

/한화건설

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 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

세대별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84㎡(112세대)은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

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치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일파룸과 드레스룸을 한 공간으로 선택 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석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신흥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희소성 있는 브랜드 대단지로 다양한 평형 구성을 통해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면서 “포레나만의 프리미엄과 상품성이 더해진 만큼 고객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KODEX 다우존스미국리츠(H) ETF’와 ‘삼성 KODEX TSE일본리츠(H) ETF’ 2종의 분배금 지급 방식을 월 분배 형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트렌드에 맞춰 기존 상품 중 투자자들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인컴형 상품을 대상으로 분배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현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 자산이나 연금 운용에 적극적이면서 근로소득 외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고자 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이번 해외 리츠 ETF 2종의 분배금 지급 방식으로 투자자는 매월 현금흐름을 활용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상품으로의 투자 전환 등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갖게 된다”며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주식과 옵션을 활용한 월배당 ETF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 송치형 회장 “블록체인 세대 등장 할 것”

### 블록체인 공유의 장 ‘UDC 2022’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진행된 UDC 2022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UDC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블록체인의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 영감을 공유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탈중앙화금융(DeFi), 웹 3.0 등을 다룬다.

송 회장은 최근 가상화폐 업계가 침체 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조건으로 블록체인 상품과 서비스 발전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번 하락장을 ‘크립토 원

터(가상화폐 겨울)’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UDC를 처음 시작했던 2018년 9월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며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디파이, NFT 등 주요 Dapp 초기 개념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투자자와 프로젝트 팀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다시 찾아온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 역시 블록체인 상품·서비스를 통한

경쟁”이라며 “컨셉이나 가능성은 넘어서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수준의 완성된 제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나무의 향후 블록체인 사업 전개 방향으로 주요 사업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업비트 NFT ▲하이브와의 조인트벤처 레벨스(Levvels)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수조원대 ‘이상외환거래’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우 대표는 “해외로 송금된 일부 금액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됐다는 보도를 통해 전해들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와 어떻게 연관된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